

CANKS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발행일: 2023.6.10



제 5 회 키르기스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

2023년 4월 15일(토) 비슈케크 소재 더플라자호텔 대회의실(1층)에서 제 5회 키르기스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가 개최되었다. 본 올림피아드는 중앙아시아 한국대 한국학센터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후원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8개 대학에서 선발된 22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열띤 경합을 벌였다. (관련 기사 p.2)

중앙아시아 한국대
(관련기사 pp.2-3)

제 5회 한국학올림피아드, 제 18회 대학생 한국학퀴즈대회, 제 3회 한국학 발전 세미나

타슈켄트 동방대
(관련기사 p.4)

국제학술회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 온라인 한국학 및 실무 특강

카자흐 국립대
(관련기사 pp.5-6)

한국학주간, 우수토베 역사탐방, 한국학 올림피아드, 총영사와의 만남

나자르바예프대
(관련기사 p.7)

한국학세미나 시리즈, 한국 대학원 진학 설명회, NU 한국어 말하기 대회

카자흐 세계언어대
(관련기사 p.8)

2023년 한국문화주간, 카자흐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 한국 음식문화의 날, 한국학 특강시리즈

* 이 뉴스레터는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canks.asia>)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중앙아시아 인명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Center for Korean Studies, KazUIR&WL
Muratbayev 200, Almaty, Kazakhstan
Homepage: <http://canks.asia>
E-mail: cks@ablaikhan.kz

중앙아시아 한국대

제 5 회 키르기스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

키르기스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이하 올림피아드)가 올해로 5 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2023년 4월 15일(토) 비슈케크 소재 더플라자호텔 대회의실(1층)에서 올림피아드가 개최되었다. 본 올림피아드는 중앙아시아 한국대 한국학센터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후원하였다. 이번 올림피아드에는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8개 대학에서 선발된 22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여 열띤 경합을 벌였다.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백태현 교수(한국학센터 소장)가 총괄 진행한 본 올림피아드는 주관 대학인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세리쿨로바 미나라 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비쉬케크 한국교육원 활슬라바 부원장의 축사와 키르기스스탄 한국어(학)교수협의회 총무인 언어문화대 박민상 교수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국학 올림피아드의 진행 방식은 참가한 학생들이 당일 주어진 한국학 관련 주제에 따른 작문과 발표를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된다. 행사 당일 오전에는 한국학 분야를 주제로 한 작문이 진행되었고, 오후에는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제비뽑기 형식으로 선택한 한국학 분야의 주제를 순서대로 발표하였다. 올림피아드 심사는 작문과 발표 두 영역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본 올림피아드의 심사위원장은 아라바예브국립대의 문상용 교수가 맡아 주었다. 당일 오전과 오후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올림피아드의 결과는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3학년 세리크볼로바 아루나 학생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세리쿨로바 미나라 총장은 본 올림피아드에 참석한 22명의 학생들에게 참가증명서를 수여하였고, 특별히 카자흐스탄에서 학생들을 인솔하여 참석한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장호중 교수와 나자르바예프대 하희송 교수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 백태현 (중앙아시아 한국대 교수)



중앙아시아 한국대

제 18회 키르기스스탄 대학생 한국학퀴즈대회

제 18회 키르기스스탄 대학생 한국학퀴즈대회(이하 퀴즈대회)가 2023년 4월 1일(토) 다마스호텔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본 퀴즈대회는 비슈켈한국교육원과 키르기스공화국 한국어(학)교수협의회가 주최하고 중앙아시아 한국대 한국학센터가 주관하였다.

한국의 ‘골든벨’ 방식으로 진행되는 본 퀴즈대회의 취지는 한국어와 한국학 학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국학 관련 여러 분야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 및 한국학 실력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대회이다. 올해 진행된 퀴즈대회는 키르기스 국립대 국제관계학부 및 동양학부, 키르기스 국립대 외국어학부, 아라바예프 국립대, 비슈케크 국립대, 언어문화대, 폴리텍대, 키르기스 법률대, 키르기스 국제대, 키르기스 한국대, 중앙아시아 한국대 등 키르기스스탄 소재 10개 대학 10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본 대회 진행을 위한 퀴즈문제 진행은 중앙아시아 한국대 배정주 교수, 나레이터는 중앙아시아 한국대 오효순 교수가 담당을 하였다. 그리고 원활한 퀴즈대회 진행을 위한 심판위원 5명은 폴리텍대의 곽희범 교수, 아라바예프국립대의 문상용 교수, 언어문화대의 박민상 교수, 중앙아시아 한국대의 박찬민 교수, 키르기스 한국대의 이현미 교수가 수고를 하였다.

본 대회는 마지막 우승자를 가리기까지 열띤 경합을 벌였다. 대회 결과 대상은 중앙아시아 한국대 4학년 다투카임, 최우수상은 중앙아시아 한국대 4학년 딜샤트, 우수상은 중앙아시아 한국대 4학년 투마르잔이 차지하였다.



제 3회 키르기스스탄 한국학발전세미나

2023년 5월 12일(금) 비슈케크 소재 유로파호텔 대회의실(2층)에서 “제 3회 키르기스스탄 한국학 발전 세미나(이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본 세미나는 ‘중앙아시아 한국대학’의 한국학센터가 주최를 하고, 키르기스스탄 고려인협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후원을 하였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본 세미나의 주제는 “키르기스스탄 슈콜라 IT 교육의 중요성과 한국학과 연계 방안”으로 슈콜라 IT 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대학의 한국학과 연계 방안을 모색해 가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인하공업전문대학의 IT 전문가 2명을 초청하여 키르기스스탄 슈콜라와 대학 IT 교육시스템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한 논의 장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세미나에는 키르기스스탄의 IT 교육 분야 전문가 2명과 비슈케크의 주요 슈콜라 교장단 및 교육행정담당자 20명을 초청하였다.

세미나를 기획한 백태현 교수는 “본 세미나가 키르기스스탄 슈콜라와 대학의 IT 교육의 발전 전망을 세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향후 키르기스스탄에서도 IT 교육과 한국학을 융합해 가는 좋은 교육시스템이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그 소감을 밝혔다.



- 백태현 (중앙아시아 한국대 교수)

타슈켄트 동방대

국제학술회의

2023년 4월 4일 우즈베키스탄 동방학대학교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현재와 미래의 협력 전망>이라는 주제의 국제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학술회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축사는 리흐시에바 굴체흐라 상원의원 겸 동방대 총장, 카리모프 코밀존 고등교육과학혁신부 1차관, 팡주만 주우즈베키스탄 한국 교육원장이 하였다. 이 국제 컨퍼런스에는 우즈베키스탄 뿐만 아니라 러시아, 한국, 카자흐스탄 등의 한국학 전문가들 30여 명이 참석하여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

2023년 3월 10일 동방학대학교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동방학대학교 학생 12명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교육의 보편적 측면, 민족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비전과 성찰, 위인들의 사상 속에 담긴 교육의 의미와 가치, 오늘날 교육의 개혁과 혁신’ 등의 4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표를 하였다. 말하기 대회의 1등은 한국어문학과 3학년 학생인 울치예바 주흐라 학생이, 그리고 2등은 한국어역사문화학과 3학년 학생인 파르다보예프 랍산 학생이 수상하였다.

온라인 한국학 및 실무 특강

동방학대학교에서는 2022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 1회 온라인 한국학 및 실무 특강이 개최되었다. 이 특강은 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한양대학교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학에 대한 강의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졸업 후 관련 업계 취업이나 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특강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강은 이승철 한양대 명예교수("Korean Politics and Inter-Korean Relations"), 노승관 한양대 교수("Understanding K-Entertainment"), 남기범 서울시립대 교수(Korean Urban Space and Society"), 박준 한양대 교수("History of Korean Culture")가 실시간으로 진행하였는데, 주제 발표 이외에도 논문 자료 찾는 법과 한국에서 진학과 취업을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최소영 (타슈켄트 국립동방대 교수)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주간

카자흐국립대 한국학과에서는 4월 3일~6일 기간에 연례행사인 ‘한국학주간’ 축제가 진행되었다. 한국학주간 축제는 일주일 동안의 다채로운 행사들을 통해서 한국학과 학생들과 교원들의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알마티 내 한국 기관 및 단체장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듣는 등 교류와 협력을 다지는 데에도 본 행사의 목적이 있다. 첫째 날에는 “한국학 골든벨: 나와 한국” 행사가 있었다. 이 행사는 일종의 퀴즈대회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 K-POP, 드라마와 영화 등 한국학 전반에 대해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되는 퀴즈게임이다. 1, 2학년들이 주로 참여하고, 2학년이 주도하여 게임이 진행되는데, 우승팀에게는 선물까지 주어지다 보니 학생들에게는 인기있는 행사 아이템 중의 하나이다. 둘째 날에는 “장기자랑”이 있었다. 한국학과 학생들의 넘치는 끼를 발산시켜주기 위한 자리로, K-POP 춤과 노래, 악기 연주, 한국시 낭송 등 한바탕 흥겨운 공연이 펼쳐졌다. 셋째 날에는 한국어 수준을 자체적으로 측정해보기 위한 “한국어 경시대회”가 치러졌다. 금년에는 1, 2학년 중심으로 행해졌고, 특히 학년별 수준을 보다 세심하게 평가해 보기 위해 시험문제를 분리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넷째 날에 펼쳐진 “한국음식의 날” 행사는 한국학주간 행사들 중 단연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작년에 행사 진행에 필요한 앞치마와 도마, 칼 등의 비품들을 추가로 많이 구비해 놓은 덕분에 금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재료를 다듬고 자르며 음식만들기에 참가할 수 있었다. 올해에는 단골 메뉴 중의 하나인 떡볶이는 제외하고 김밥만들기만 진행되었다. 특별히 한국학주간 행사들을 첫 경험하는 1학년생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으로 다가왔으며, 참가자들 모두에게 한국의 음식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우슈토베 역사탐방

2023년 1월 새해 초에 고려인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우슈토베에서 카자흐국립대 한국학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역사탐방이 수행되었다. 우슈토베는 CIS 고려인들의 메카와도 같은 상징적인 곳이며, 이곳에는 강제이주의 아픔을 안고 있는 우슈토베 기차역과 1999년에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세워진 정치탄압희생자위령비, 1938년에 건립된 최초의 고려인학교, 크즐오르다에서 이전되어 와 활동했던 고려극장 건물(1942-1959)이 있다. 여기에 우슈토베 고려인 관련 유적지 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바스토베 언덕에 있는 강제이주기념공원(우호공원) 내의 기념비와 항일애국지사 추모비가 있으며, 이주 초기에 고려인들이 추위를 피해 지냈었던 재현된 토굴이 자리하고 있다. 매서운 날씨 속에서 진행된 답사였지만 참가학생들의 큰 관심 속에 탐방은 진행되었다. 고려인 문제 또한 해외한국학의 한 부분인 점을 감안했을 때, 금번 우슈토베 고려인 유적지 탐방은 한국학을 전공하는 참가 학생들 모두에게 특별히 귀한 현장체험학습의 기회가 되었다.

- 이병조 (카자흐 국립대 교수)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올림피아드

2023년 4월 19-20일 기간에 카자흐국립대 동방학부에서 공화국동양학올림피아드(한국학 분야)가 시행되었다. 본 행사는 알마티 한국지상사와 한국교육원의 후원 하에 진행되었으며, 한국학 올림피아드에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약 2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오전에는 한국어와 한국사(문화) 분야 테스트 시험이 있었고, 오전 테스트에 통과한 9명의 참가자가 오후 2라운드 결선대회에 진출했다. 오후에 진행된 PPT 발표에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참가자들의 발표 수준이 매우 높았다. 참가자들 모두 그 동안 준비해 온 한국학 분야(역사, 언어, 발표)의 지식과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입상자들에게는 푸짐한 상금과 상품이 지급되었다. 한국학올림피아드는 명실공히 카자흐스탄 최고의 지식겨눔의 장이며, 한국학도에게는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제고시켜주는 최고의 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총영사와의 만남

2023년 5월 초에 카자흐국립대 동방학부 한국학과에서 2022-23 학년도 마지막 특별 행사로 “한국총영사와의 만남”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한국학과-한국총영사관 간의 첫 만남으로, 100여 명의 1~3학년생들이 멋진 축하공연으로 한국총영사(박내친)님을 맞이했다. 첫 축하 공연으로 2학년들로 구성된 4명의 학생들이 예쁘게 한복을 입고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4개 국어(한국어, 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로 낭독했다. 시 낭송은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고, 참석자들의 큰 박수와 호평을 받았다. 이어진 카자흐 전통악기 돌브라 연주 또한 특별했다. 한복을 다소곳이 입은 채로 카자흐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새롭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마지막 축하 공연은 1~2학년 혼성으로 구성된 K-POP 댄스팀이 장식했다. 한국의 어느 댄스팀과 견주어도 손색없을 정도로 학생들의 춤동작은 수준급이었고, 행사의 분위기를 흥겹게 고조시켜 주었다. 축하공연이 끝나고 박내친 한국총영사님의 특강이 이어졌다. 특강은 1부에서는 “한국의 역사와 발전상, 한-카 관계”에 대해서 다루어졌다. 특히 한국역사 부분에서는 동해와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는데, 해당 문제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들을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총영사님은 특강을 통해서, ‘동해’라는 명칭은 역사적으로 사용되고 표기되어 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의해 명칭이 왜곡 표기되었다. 독도 또한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에 편입되었고, 이후에는 일본의 영토라고 오랫동안 억지 주장을 해오고 있다”라며, 일본의 왜곡되고 빼돌려진 역사관을 전달했다. 특강 후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4가지의 한국 전통 음식들(한국불고기와 김밥, 잡채, 김치)이 차려진 뷔페식 점심을 함께 하며 담소를 시간을 가졌다.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참가 학생들에게 특강과 더불어 한국의 전통음식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 이병조 (카자흐 국립대 교수)



나자르바예프대

한국학 세미나 시리즈

2023년 5월 25일 본교 한국학센터는 미국 뉴욕주립대 버팔로 대학의 이재경 교수를 모시고 한국과 미국의 중고등학교 교육 개혁 및 교육 시스템 비교에 관한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었으며 본교 교수진과 대학원생들이 주로 참석하였다. 이재경 교수는 재미 한국인 학자로 뉴욕 버팔로대학의 학장을 지내고 초중고 교육정책 분야에 관한 미국 풀브라이트 재단의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재경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교육개혁 사례를 비교한 연구를 발표하였지만, 동시에 카자흐스탄의 중고등학교에 대한 토론도 함께 진행하여 현지 교육정책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K-talks@NU 한국 대학원 진학 설명회

2023년 4월 25일 나자르바예프대 한국학센터는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대학원 유학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알마티에서 한국 유학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학원 이우 에듀케이션의 대표(이정표, 우희석)가 본교에 방문하여 한국 대학의 유학생 입학 구조와 GKS 이외의 대학별 장학금 기회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주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제 3회 NU 한국어 말하기 대회

지난 4월 4일 본교 한국학센터가 주관한 제 3회 NU 한국어 말하기대회의 시상식이 있었다. 이번 대회는 “내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라는 주제로 중급부와 초급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전체 대상은 아스펫 백마감베토바(정책대학원)이 받았으며, 토미리스 다울렛베코바(문리대 1학년), 누라이 우시나(언어학과 1학년)가 각각 중급부와 초급부 최우수상을 받았다. 수상자들에게는 사장과 함께 소정의 축하금이 전달되었다. NU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본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알마티교육원의 후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 고태훈 (나자르바예프대 교수)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2023년 한국문화주간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2023년 4월 20일(목)부터 28일(금)까지 한국문화주간을 개최하였다. 알마티 한국교육원,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총동문회가 후원한 한국문화주간에 2023 카자흐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 한국어 백일장, 한국 음식문화의 날, 한국학특강시리즈를 진행하였다.

2011년부터 개최한 카자흐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는 2015년부터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로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2018년부터 카자흐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와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로 분리하여 개최하고 있다. 2022년 제 12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3개국 6개 도시 13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한 대학생 22명이 참가하여 명실공히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경시대회로 자리잡았다. 올해 카자흐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는 4월 20일(목), 21일(금) 이틀에 걸쳐 어문학부와 통번역부문으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한국학총동문회(회장 샤이케노프 아스하트)에서 후원하여 수상자들에게 1등 50,000 텡게, 2등 30,000 텡게, 3등 20,000 텡게, 장려상 10,000 텡게의 상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4월 28일(금) Blue Hall 만찬장에서는 한국음식문화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과는 어문학, 통번역, 동양학의 3개 전공이 있다. 한국어와 문학 중심의 과목이 집중된 어문학전공에는 104명이 재학 중이며, 통번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통번역전공에는 129명이 재학 중이다. 지역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역사, 정치, 경제 등의 과목을 강의하는 동양학전공에는 157명이 재학 중이며, 제 2외국어 수강생 36명을 더해 총 326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한국학 관련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한국학과에서는 저학년 때 수업별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는 실습 기회를 가졌으나, 코로나 19 이후 한동안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데 모일 수 없었다. 이에 한국문화주간을 맞아 1, 2, 3학년 학생들을 위해 떡볶이, 김밥, 꼬치전 등 한국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장호중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교수)

